



소아마비 퇴치 글로벌 이니셔티브

(Global Polio Eradication Initiative)

투 자 사 례
요 약 보 고 서

POLIOERADICATION.ORG

소아마비 없는 세상: 역사를 만들고 생명을 구하다

약 30년 전 소아마비 퇴치를 목표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 출범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대가 끝나기 전에 역사를 만들 기회를 갖게 되었다. 수십만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잇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불치병이 지금으로부터 3년 후인 2019년에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제 전세계 모든 아동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 지난 3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소아마비는 천연두에 이어 세계에서 박멸된 두 번째 질병이 될 것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소아마비는 매년 35만 이상의 아동을 장애인으로 만들었다. 1988년 감염국, 후원자, 주요 면역기관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민간 프로그램으로 '소아마비 퇴치 글로벌 이니셔티브(GPEI)'가 출범했을 때

목표는 단 한가지였다. 바로 소아마비를 완전히 뿌리뽑자는 것이었다. 지난 30년간 2천만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교전지역, 정글, 도시 슬럼가, 외딴 마을 등을 찾아 다니며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희망을 전했다. 그 결과로 2015년 전세계 소아마비 발병 사례는 80건 미만으로 감소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수백만 명의 건강과 삶을 개선하는 '예방접종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 1천 5백만 명 이상이 영구 장애의 위험을 벗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받은 아동의 총 숫자는 25억을 넘어섰다. 또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 곳은 지구 상에서 단 두 곳(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으로 줄어들었다.

예방접종의 선순환 고리

소아마비 퇴치에 주목해야 할 이유

소아마비 퇴치는 끔찍한 질병 하나를 사라지게 하고 국민의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경제, 전세계에 영구적인 혜택을 안겨 준다.



퇴치 프로그램의 목표는 2016년에 바이러스의 전파를 중단시킴으로써 2019년에 전세계가 소아마비 근절 인증을 받는 것이다(주: 신규 발병 없이 3년 경과 후 퇴치 인증). 소아마비 퇴치의 마지막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15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 역사적 성취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규 후원자, 도전의 마지막 장벽을 넘기 위해 노력하는 용감한 현장 의료요원들이 결합된다면 소아마비를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2016년에 바이러스의 전파 차단이 실패한다면 15억 달러의 재원 이외에 매년 8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의료보존 분야는 '소아마비 없는 세상'의 실현을 통해 2035년까지 5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감수하게 될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중해 동부지역과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난민위기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바이러스는 퇴치 지역 내 재유행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수십만 아동의 생명을 또 다시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목표 달성을 코앞에 두고 포기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수치로 나타난 성과

소아마비 퇴치 프로그램은 1988년 출범 이후 아동의 생명과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25억명

2000년 이후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받은 아동



80건

연간 전세계 소아마비 발병 건수 (1988년에는 2시간당 80건 발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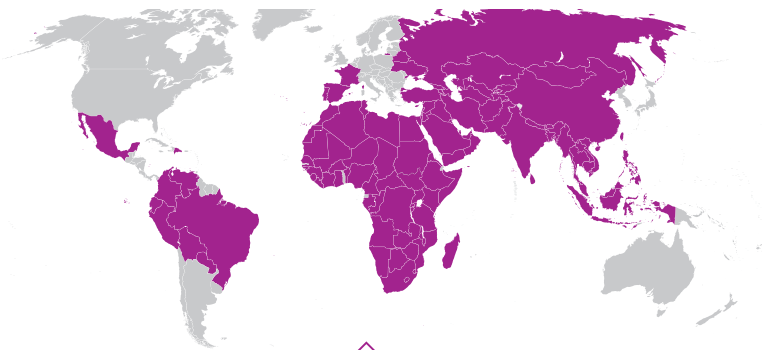
1,500만명

퇴치 프로그램을 통해 소아마비의 위험에서 벗어나 걸을 수 있게 된 사람



270억 달러

현재까지 절감액 (영양 관련 혜택을 포함할 경우 170억 달러 추가 절감)



1988년

소아마비 유행국



2015년





희소식은 소아마비 퇴치가 실현 가능한 목표이며 목표의 달성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이 지난 5년간의 경험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인도와 나이지리아에서 소아마비 정복을 가능하게 했던 혁신적인 전략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소아마비 퇴치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OPV(경구용 생백신)와 IPV(주사용 사백신)의 상호보완적 사용, 높은 수준의 예방접종 캠페인, 모든 아동에게 도달하기 위한 지역사회 동원 활동 등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방화벽을 세우기 위해 감시 노력을 개선해야 한다. 향후 2년간 이러한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야만 소아마비가 위협으로 남아 있는 지역의 마지막 사례까지 완전히 퇴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은 현재 파키스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양국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국가비상사태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비상사태운영센터'를 가동하여 정부와 협력기관 간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받는 아동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병 사례는 감소하고 바이러스는 퇴각하고 있다.

GPEI의 구체적 지원 사례

4억명 이상의 아동

매년 60개국 4억명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경구용 백신(OPV)과 비타민A 캡슐을 함께 공급하고 있다.

15만명

프로그램 재원으로 고용된 약 15만명의 의료요원이 70개국에서 소아마비 퇴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사백신 도입

126개국에서 정기 예방접종 시 사백신을 투여하고 있다.

질병 감시 활동

감시 활동을 실시하는 국가가 70개를 넘어섰다.

차후 계획

지출 증가는 2016년에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추가 재원의 1/2은 4억명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1년간 실시하고 신규 접종을 확대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접종 캠페인은 가장 큰 도전이 놓여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나머지 1/2은 위험 감소와 지속가능성 활동에 투입되어 '소아마비 없는 세상'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접종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퇴치국을 신규 발병에 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소아마비 퇴치 프로그램은 지구상의 모든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토대로 하고 있다. 시행국과 공여국의 리더십, 퇴치 프로그램의 결정적인 지원 덕분에 수백만 아동들이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식 관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정기 접종 등과 같은 미래의 보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소아마비 퇴치 프로그램이 남긴 유산은 소아마비가 근절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전세계 아동의 불평등 완화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파키스탄의 홍수,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네팔의 지진 등의 사태에서도 소아마비 퇴치 프로그램의 자산이 기록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가동된 바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에볼라 확산이 중단된 이유도 소아마비 퇴치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과 의료요원을 활용하여 우선순위 설정, 접촉 추적 방문, 대중 홍보활동 등을 시행했기 때문이었다.

퇴치 달성에 필요한 추가 자원 15억 달러가 없다면 정기 접종뿐 아니라 의료 체계 취약국에 대한 간접 지원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다양한 정부기관과 민간 후원자가 소아마비 퇴치라는 역사적인 목표에 함께 해 왔으며 그들의 지속적인 협조는 현 시점에서도 필수적이다. GPEI의 신규 후원자와 기존 후원자가 힘을 합쳐 '소아마비 없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전세계 모든 곳에서 아동의 삶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30년 전에 시작했던 일을 함께 끝낼 수 있다.



사진 제공

- 1페이지: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 2페이지: 우간다 소아마비 예방접종 의료요원들, 스투어트 램슨(Stuart Ramson)/유엔재단
- 3페이지: 시리아, 세계보건기구 동지중해지역사무소(EMRO)
- 4페이지: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소아마비 퇴치
글로벌
이니셔티브